

장성군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5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분석...전남 1위·경영활동 전국 4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 평가

장성군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자치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발표한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자료에 따르면 515.7점을 기록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 5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에선 1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전국 군 단위 평균인 443.9점보다 70점 이상 높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인구·제조업·일자리·소비력 등을 나타내는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의 간격을 파악해 수치화한 종합 자료다.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로 구성되며 장성군은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전국 4위, 전남 1위에

오르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과 카카오 데이터 센터 구축 가시화, 인구 유입 촉진, 신성장 동력 창출 노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군은 분석했다.

지난 16년간 도전해 확정된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남면 장성나노산단 1만9800㎡ 부지에 국비 1001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의료와 치유관광을 접목한 치유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 인근에 구축되는 4900억원 규모의 장성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내년 7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38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은 진원·남면 일대에 9500명 규모의 인구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들어 '음식'을 콘텐츠로 한 관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했다.

백종원 대표의 (주)더본코리아, 씨제이(CJ)푸드빌과 잇따른 업무협약으로 장성 먹거리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기회를 잡아서다.

장성군은 민선 8기 공약인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미식 관광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상위권 포함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군민과 공직자 덕분"이라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 지역과 향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을 찾은 유치원 아이들이 박물관 누리과정과 연계한 협동형 문화재 놀이 교구 '열러라, 독널!'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영산강 역사·문화, 놀이 교구로 배워요

국립나주박물관 '열러라, 독널!' 개발...유아 자율·창의성 신장

국립나주박물관이 유아용 문화재 놀이 교구 개발에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유아들이 고대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누리과정과 연계한 협동형 문화재 놀이 교구 '열러라, 독널!'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놀이 교구는 유아의 놀이 중심 문화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독널'은 국립나주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로,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인 항아리 모양의 흙으로

만든 관이다. 놀이 활용법은 고대 마한 지도자가 묻힌 고분 속 독널 주인공의 옷과 장신구 등으로 만드는 '독널 속 부장품 꾸미기'와 책이나 블록 등으로 독널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꾸미는 '독널 만들기' 등 2가지다.

박물관은 올해 1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놀이교구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부터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우리 문화유산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교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명소 10곳 예술 입히니 '작품'이 되다



금성관 앞 설치작품 '만남'



옛 화남산업에 설치된 민성홍 작가 'Drift 비정형'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 40여일간 전시...새로운 시도 호평

올해 첫 선을 보인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 2023'가 아트투어 활성화라는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2023은 지난 10월 19일 개막해 11월 30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했다. '흐름, 열 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입체·설치·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개국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나주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원 10곳에 현대적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의미에 예술적 가치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이 설치된 역사적 장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현대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민선 8기 나주시의 문화 정책 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산재하듯 분포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문화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 기간 전남문화재단 2개 사업팀을 비롯한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설치미술제 현장을 찾았다.

지난 11월 16일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문화사절단이, 21일에는 광주문화재단 직원 100여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황봉년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재단 직원들이 문화와 예술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엮어내고 인문학적 담론을 담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배우길 바란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장현우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담당장은 "이번 설치미술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과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관광객들은 현대미술을 통해 나주의 역사와 의미를 마주했으며 주민들은 익숙한 장소를 통해 낯선 예술을 만나는 아트투어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강진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유치 후 '문전성시'

6개월 누적 이용 7000명 돌파 경제유발효과 14억여원 추정 군, 내년 20~30척 추가 유치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한 강진 마량항에 6개월간 7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지난달 말 기준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이 7000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유치는 강진군의 민선 8기 60대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6월 낚시 어선을 유치한 뒤 마량항 바다낚시 이용객은 6월 40명으로 출발해 7월 1206명, 8월 1271명, 9월 1269명, 10월 1462명, 11월 174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열어 팔도 강태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바다낚시 이용객이 늘자 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강진군은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소비로 이어진 경제유발 효과가 13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진군은 바다낚시 어선을 내년에 20~30척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단체 관광을 온 낚시객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강진군이 마량항에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한 지난 6월 이후 7000여 명이 바다낚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열린 '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 <강진군 제공>

전국 바다낚시 대회·낚시 체험 등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강진 마량항은 서해안과 달리 사계절 낚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바다낚시 대회 이후 낚시꾼들 사이에서 마량항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

다"며 "내년에도 바다낚시 어선을 지속해서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 마량항을 해양관광 1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바람나는 마량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의회, 부끄러운 막말 추태

의장 vs 의원, 미승인 편성 예산 등 놓고 욕설·폭언

장흥군의회의장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원과 욕설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11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장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A의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의회의 공무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공무재산관리계획 승인)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장은 내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장흥 바 이오식품산업단지(옛 해당산단) 안 체육부지에 건립 예정된 야구장 건립 대상지를 부산면 지천리 체육단지로 옮기려는 심의안을 문제로 들었다. 또 안양면 어촌활력사업 예산을 정부 공모사업으로 충당하려는 점, 의용소방대 주차장 부지 이전 예산 등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은 A의장에게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니 뒤에서 코치(지시)하지 말고 나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심의에는 장흥군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언쟁은 심의가 끝난 뒤에도 지속됐다. 7명의 의원이 모인 한 의원실에서 A의장이 B의원에 "말버트쟁이 고쳐 말하시오"라고 하자 B의원은 "호로자식 바리"고 응수했다.

3선인 A의장과 B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열린 의원 연수회에서도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싸움을 벌여 눈총을 샀다.

일각에서는 장흥군의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 내년 예산은 4937억원으로, 당초 예산안(4963억원)보다 26억원 삭감하는 데 그쳤다. 올해 예산 삭감액은 110억원이었다.

주민 A(장흥읍)씨는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욕설과 막말을 섞은 말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장흥군의회는 장흥군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례를 알맞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조선 500년 삶의 모습 간직한 전라병영성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14일~내년 3월10일 특별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전라병영성 관련 자료와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한 '전라병영성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 1471년부터 1895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를 총괄했던 육군의 총지휘부인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에 자리하고 있다.

강진군은 1997년 전라병영성이 국가 사적 제 397호 지정과 동시에 전라병영성 정비 계획을 수

립, 성곽과 문루 복원을 했다.

2011년부터 성 내부에 대해 발굴조사도 하는 등 전라병영성 유적 보호에 주력해 왔다.

특별전에서는 병영면 일대가 지라·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삼국·고려시대 유물을 비롯해 조선시대 기와, 도자기, 금속류, 목재류 등 병영성의 역사와 군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성군, 내년에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식품바우처' 3년 연속 선정

장성군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나간다.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이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국비 2억8200만원을 확보, 내년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신선한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식품 구매 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는 장성로컬푸드 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농식품 꾸러미를 만들어 직접 전달한다. 배달은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